



타락

구효서 지음

타락이 낙원이 될 수 있다

1987년 등단해 올해로 28년 된 작가 구효서가 신작 '타락'을 출간했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호에 이르기까지 '현대문학'에 9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작품을 묶어낸 장편이다.

작가가 "이제야 쓰고 싶은 대로 쓰기 시작했다"고 밝힌 것처럼 연재 초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이다. 낯선 이국땅에서 사랑에 빠진 두 남녀를 '타락'으로 보지만, 이들에게 '타락'은 자신의 것들을 모두 소진하고 영점으로 직하하는 치명적인 움직임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퇴락과 타락이 낙원과 구원일 수 있다는 역발상과 신화적 상상력이 맞물린 결과다.

이소연 평론가는 "'타락'은 많은 번민을 안겨주는 작품이 될 것이다. 등장 인물, 사건, 배경 가운데 어느 것 한 가지도 '현실'과 거리가 먼 상황에서 우리는 그 작품을 '현실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이다"며 작품의 의미를 평한다. <현대문학·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한국의 미래...

임기철 지음

기술혁신체제에 미래 있다

고령화, 저성장, 저고용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한국의 미래는 결코 밝지만은 않다. 이를 타개할 방법은 뭘까.

임기철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이 펴낸 '한국의 미래, 과학기술혁신체제에서 길을 찾다'는 '혁신과 신뢰'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를 담보해줄 과학기술혁신체제의 성공요인과 핵심전략을 제안한다.

이 책은 과학기술혁신체제에서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해답을 찾고자 한다. 저자는 국정 목표로 설정한 '창조경제'가 바로 우리가 선택한 이 시대의 전략이라고 할 때 창조경제란 '지식 생산과 활용의 효율적 체계'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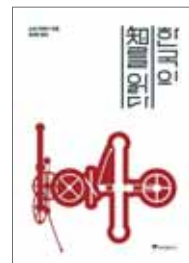
창업국가, 곧 기술혁신에 토대를 둔 창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삼성경제연구소·80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국의 지' 알리기 어떤 책을 소개할까

한국의 지를 읽다

노마 히데키 엮음



여기 한·일 양국 지식인들에게 던지는 두 개의 질문이 있다. 먼저 일본 지식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책을 통해 한국의 '지(地)'를 알게 되었나" 또 하나는 한국 지식인에게 묻는 질문이다. "한국의 지를 알리기 위해 당신은 어떤 책을 소개할 것인가"

이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한·일 양국 지식인 140명이 모였다. 전자의 질문에 가라타니 고진,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 교수, 교보작가 김석범 등 지식인 94명이 참가했다. 후자의 질문에는 문학 비평가 백낙청, 건축가 승효상, 소설가 성석제 등 46명이 참여했다.

언어학자이자 일본 국제교양대학 객원 교수 노마 히데키가 펴낸 '한국의 지를 읽다'에는 한국의 '지'에 대한 양국 지식인들의 생각이 담겨 있다. 이 책은 지난 2월 일본에서 출판돼 반향을 일으킨

'한국·조선의 지를 읽다'의 한국어판이다.

저자인 노마 히데키 교수의 이력이 흥미로운 것은 그가 '한글의 탄생'으로 2012년 한글학회 주최 주시경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학자라는 사실이다. 한글 학회가 주는 상을 외국인인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독도문제, 평화헌법 등 휘발성 있는 문제로 한일 양국의 기류가 심상치 않던 시점에 선정된 그의 수상은 양국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지'란 무엇일까? 또한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한국어권과 일본어권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만난 '지'와 스친 순간들을 이야기한다. '지'는 이 책이 지향하고 지향하는 키워드다.

한국인인 우리들은 한국의 '지'를 근거로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나'라는 인간을 만들고 성장하면서 그것의 토대인 '지'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인, 전문인은 익숙해져, 그 모든 것의 총체인 '지'라는 단어의 실제에 대해서는 모른다.

노마 히데키 교수는 프로젝트(2013년 3월~2014년 2월)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지'와 만나게 해준 책은 1권에서 5권 정도 추천하고 이유를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1000통이 넘는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그 결과 의외의 답이 나왔다. 아니 두

드러진 경향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책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지'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것일 터이다. 특정 책을 한국의 '지'라고 단언하기에는 너무나 광대하다는 전제가 담겨 있다.

일본어권 필자들이 추천한 책은 모두 265종이었다. 그 가운데 북수 추천을 받은 책은 26종에 불과하다. 눈에 띄는 것은 저자인 노마 히데키 교수의 '한글의 탄생'이 6번이나 추천됐다는 점이다.

이 책은 2010년 일본에서 출간돼 3만부가 팔리며 일본어권 사회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었다. 아마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편자의 저서라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일본 지식인들이 '한글'의 지적 성과를 가장 의미 있는 한국의 지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많이 추천 받은 책은 운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김종혁 단편집 '약기들의 도서관'이었다.

한국어권 지식인들은 모두 135종을 추천했다. 중복되는 책은 일본어권 필자보다 적어서 단 5권만이 해당되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책은 '김수영전집'과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4번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이밖에 박경리의 '토지'와 이상의 '정본 이상문학전집', 이우환의 '만남을 찾아서'가 2번의 추천을 받았다.

양국 지식인이 공동으로 추천한 책은



백낙청·승효상·하루키... 한·일지식인 140명 참여 지의 모든 것 파헤치다



최인훈 '광장'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박경리 '토지', 노마 히데키 '한글의 탄생'이다.

이 책은 '한글'의 지적 성과를 가장 의미 있는 한국의 지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책은 2010년 일본에서 출간돼 3만부가 팔리며 일본어권 사회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었다. 아마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편자의 저서라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있었을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일 양국 지식인 모두 문학작품을 많이 추천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라면 사회과학 서나 연구서를 떠올리기 쉽지만, 문화 수준과 정서를 보여주는 문학작품을 중요한 '지'로 요소로 본다는 의미다.

<위즈덤하우스·2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심리학 전문가가 파헤친 모든 범죄의 재구성



심리학자가...

벨리다 원다 지음

절도, 살인, 강간, 스토킹, 폭력, 성범죄, 방화, 사기 등...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만수무침 많은 범죄가 일어난다.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범죄 건수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절도부터 끔찍한 살인에 이르기까지 크든 작든 모든 범죄는 심리학, 경제적으로 피해를 낳는다. 세상의 모든 범죄 심리를 흥미롭게 파

헤진 책이 나왔다. 영국 노팅엄트렌트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부교수인 벨리다 원다와 필립 밴야드가 펴낸 '심리학자가 바라보는 모든 범죄'는 14개 분야 A부터 Z까지를 세세히 다룬다. 범죄의 정의와 사실, 수치는 물론 정신적 질병, 약물 남용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책은 모두 3개의 파트로 구성돼 있다. 우선 파트 A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저지르게 되는지 최근의 통계를 예만도 무수히 많은 범죄가 일어난다.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범죄 건수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절도부터 끔찍한 살인에 이르기까지 크든 작든 모든 범죄는 심리학, 경제적으로 피해를 낳는다. 세상의 모든 범죄 심리를 흥미롭게 파

헤진 책이 나왔다. 영국 노팅엄트렌트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부교수인 벨리다 원다와 필립 밴야드가 펴낸 '심리학자가 바라보는 모든 범죄'는 14개 분야 A부터 Z까지를 세세히 다룬다. 범죄의 정의와 사실, 수치는 물론 정신적 질병, 약물 남용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범 죄 유형이나 범행 동기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통계자료가 영국에 관한 것인데, 그럼에도 "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 양상은 다른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스미디어·2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잊지 말자 세월호" 작가 12명이 쓴 에세이



눈먼 자들의 국가

김애란 외 지음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눈을 떠야 한다.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끝내 눈을 감지 못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박민규) "더듬더듬 손을 뻗어 길을 찾고 싶으나 심해처럼 캄캄하고 어둡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패허

의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켜보자, 이것이 시작이다." (신경숙)

세월호를 추모하고 잊지 않고자 쓴 에세이 '눈먼 자들의 국가'가 출간됐다. 김애란, 김형숙, 김연수, 박민규, 진은영, 황정은, 배명훈, 황종연, 김홍중, 전규찬, 김서영, 홍철기 등 12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책에 실려 있는 글들은 기간 '문학동네' 2014년 여름호와 가을호에 게재된 것을, 출판사와 작가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길"이라며 책값을 5500원으로 낮추고 인쇄와 판매수익을 모두 기부기로 했다.

<문학동네·55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 트라이슈머 시공 →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주요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 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